

中共 實用主義路線의 이데올로기적 性格

—毛澤東思想과 관련하여—

康 根 亨*

目 次

- I. 序論
II. 毛澤東思想과 實用主義의 比較
III. 實用主義路線의 이데올로기적 性格
IV. 結論

I. 序 論

1949년 毛澤東이 중국 대륙을 석권한 이후 전개된 中國의 共產革命에 뒤이어 4반세기만에 鄧小平에 의해 새롭게 시도되고 있는 實用主義革命은 중국의 제2공산혁명이라 부를 수 있을 만큼 중국사회와 외부세계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마르크스·레닌主義를 중국적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하였다는 毛澤東思想을 지도이념으로 하여, 中國共產黨은 中國의 전통문화와 사회구조를 뒤엎는 특이한 社會主義 사회로 中國을 개조하려고 노력하여 왔으며, 그 결과로 수천년 중국사회에 자리잡아 왔던 生産樣式과 社會構成 원리를 파괴하고, 그 자리에 새로운 社會主義·全體主義 틀을 들여 놓았다. 그러나, 中國共產黨의 열성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中國社會를 그들이 理想으로 하는 共產社會로 개조하는 데는 실패하였다. 革命이데올로기는 혁명 성취와 동시에 새로운 체제의 管理이데올로기로 역할을 달리하기 때문에 革命的 理想을 실현하는 저해요소로서의 현실여건에 부딪혀 순탄하게 혁명과업을 수행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¹⁾

※이 논문은 1987년도 문교부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해 연구되었음.

1) 李相禹撰, 「中共의 새 進路」(서울:법문사, 1986), pp.13~14.

* 師範大學 助教授

毛澤東 사망후 교조적이며 급진적이던 四人幫을 중심으로 한 文化革命 추진세력과 현실적응을 강조해오던 온건노선의 鄧小平 등의 實用主義 세력과의 권력투쟁을 거쳐, 197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는 鄧小平 주도의 세2혁명, 즉 實用主義路線의 시대로 들어서게 되었다. 1978년 12월의 중국공산당 제11기 3中全會를 계기로 굳혀진 鄧小平體制의 성격과 이 체제가 설정한 정책노선에 따라 中共은 엄청난 변신을 시작했으며, 1980년대는 이러한 변신이 구체화되는 시기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共產主義體制에서는 이데올로기가 매우 강조되며, 모든 정책은 이데올로기적 측면에서 해석되고 정당화된다. 그리고 政權의 변화가 비록 내면적으로는 권력투쟁의 결과라 하더라도 표면상으로는 이데올로기적 투쟁 양상을 띠며, 특히 中共의 경우는 이러한 성격이 농후하다. 따라서 實用主義路線의 이데올로기적 성격분석은 앞으로 전개될 中共의 상황을 예측하는 데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와 같은 전제하에서 이 글의 목적은 첫째 鄧小平體制가 추진하고 있는 實用主義路線을 毛澤東思想과 비교하여 實用主義路線의 特徵을 분석해보고, 둘째 이를 통하여 實用主義路線이 지향하고 있는 이데올로기적 성격이 '中國式 社會主義'라는 새로운 모형을 창출하고 있다는 점을 추출하려는 데 있다.

Ⅱ. 毛澤東思想과 實用主義의 比較

中國의 정치과정에는 이데올로기와 政策定向이 다르고, 權力利益이 상충되는 두개의 理念, 즉 毛澤東思想과 實用主義가 존재하며, 中國政治의 變化는 이들 두 노선과 세력의 상호갈등과 대립을 통하여 파악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實用主義路線의 특징을 분석하기 위해 毛澤東思想과 비교·검토하고자한다.

'毛澤東思想'이라 함은 毛가 저술한 문헌과 그가 제창했던 路線 및 政策의 내용을 말한다. 현재 中國共產黨은 그들의 공식 이데올로기를 '마르크스·레닌主義·毛澤東思想'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처럼 그들이 독특하게 자기들의 입장을 밝히는 것은 보편적인 마르크스·레닌主義를 中國의 특수한 현실에 적응하여 발전시킨 것이 '毛澤東思想'이라고 보기 때문이다.²⁾

'實用主義'라 함은 毛가 사망한 뒤 그의 후계자들, 특히 鄧小平이 채택한 路線 및 政策의 내용을 말한다. 鄧과 그 일파들은 자기들의 주장을 實用主義라고 말하지 않는다. 다만 외국의 관찰자들이 鄧小平의 시책과 언행을 이렇게 특징짓고 있을 따름이다. 여기에서도 이러한 주장에 의거하여 鄧이 제창했고 실행하고 있는 여러가지 주장과 정책을 근거로 實用主義의 내용을 밝혀

2) 中共黨 12全大會에서 채택된 黨規約은 "毛澤東思想은 마르크스·레닌주의가 중국에서의 운용과 발전에 있어서 실천에 의해 증명된 중국혁명과 건설에 관한 정확한 이론 원칙이며 경험의 종합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人民日報」, 1982.9.9. 柳世熙, "中共의 이데올로기적 變化: 毛澤東의 毛思想과 鄧小平의 毛思想," 「中蘇研究」, 제8권, 제4호(1984/5 겨울), p.11에서 재인용.

보겠다.³⁾

특히 毛澤東思想과 實用主義가 추구하고 있는 社會主義觀, 路線 및 政策을 중심으로 비교하고자 한다.

1. 政治決定論 대 經濟決定論

毛澤東은 중국이라는 후진사회에서 공산주의 혁명을 실천함에 있어 지도층의 의지와 역량에 따라 비록 객관적인 환경이 혁명수행에 미흡하더라도 혁명을 앞당길 수 있다는 생각하에 공산혁명을 성공시켰다. 毛는 공산주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上部構造의 변혁이 生産力의 발전에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한다. 즉, 경제적 발전이 이루어지고, 사회주의적 생산관계가 존재한다고 해서 이것만으로 공산주의적 목표가 자동적으로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적절한 사회적 가치들이 확산되어 미래 공산주의 사회의 물질적 선행조건들을 창조하는 과정에 내면화되지 않는다면 공산주의사회는 실현될 수 없다는 것이다.⁴⁾

이와 같이 毛는 역사의 창조와 공산주의적 미래를 달성하는데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는 적절한 혁명정신과 도덕적 가치를 간직하고 있는 인간임을 강조한다. 전체인민이 공산주의 사상으로 무장할 때, 사회주의 건설은 이룩되며 공산주의 사회를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결국 인간과 환경과의 관계에 있어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인간의 精神이라는 主意主義(voluntarism)의 입장이며, 따라서 사회주의 혁명은 곧 인간의식의 혁명임을 의미한다. 요컨대 객관적 세계(환경)의 전환은 주관적 세계(정신)의 전환으로써만 가능하기 때문에 객관적 환경을 공산주의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인간의 정신을 우선 공산주의적으로 개조해야 된다는 것이다.⁵⁾

이러한 맥락에서 毛澤東은 근본적으로 혁명이건 사회주의 건설이건 간에 중요한 것은 경제나 기술이 아니라 政治라고 이해했다. 政治掛師(Politics in Command)라는 슬로건에서 분명한 것처럼 毛澤東의 진수는 政治優先에 있었다.⁶⁾ 毛에 있어서 政治란 매우 복합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마르크스나 레닌이 모두 계급투쟁을 강조했으나 그러한 계급투쟁의 무대는 경제적 영역이었으며, 이른바 下部構造였다. 역사의 원동력으로서의 계급투쟁은 生産力과 生産關係 사이에 존재하

3) 鄧小平을 實用主義者로 규정해도 되는지에 대해서는 異論의 여지가 있다.

왜냐하면 중국에서 말하는 實用主義는 서방에서 말하는 것과는 개념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中共의 1급 이론가인 高揚은 實踐의 觀點과 實用主義는 엄격히 구분해야 된다고 하고, 오히려 文華派와 林彪를 實用主義의 범주에 넣고 있다.

유세희, *ibid.* 참조. Schram도 鄧과 그의 추종자들을 실용주의자(pragmatists)라고 부르기 보다 오히려 실천파(practice faction)라고 부르는 것이 합리적임을 주장한다. Stuart R. Schram, "Economic in Command?: Ideology and Policy Since the Third Plenum, 1978~84," *The China Quarterly*, No.99 (Sep. 1984), p.420참조.

4) Maurice Meisner, *Marxism, Maoism and Utopianism* (London: The Univ. of Wisconsin Press, 1982), pp.121~122.

5) 柳世熙, *op. cit.*, p.21참조.

6) 鄭鍾旭, "毛澤東思想과 마르크스主義의 中國의 受容," 「社會科學과 政策研究」, 제5권, 제1호 (1983년 7월), p.62.

는 矛盾에 의해 야기되는 것이었으며, 그러한 唯物論的 史觀 때문에 政治는 經濟의 부수물에 지나지 않는다고 이해되었던 것이다. 政治가 중요하지 않다고 주장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스스로의 독자성이 인정되지 않은 채, 그 당시의 經濟關係에 의해 그 테두리가 결정되어야 했다. 人間의 意識이나 思考方式도 생산관계의 특징을 반영하는 것이며, 따라서 생산관계나 생산수단의 소유제도가 바뀔 때 마르크스가 상부구조라 불렀던 일체의 범주도 그에 맞게 변화하는 것이었다.⁷⁾

그러나 毛澤東은 政治가 반드시 經濟와 일치한다고 보지는 않았다. 비록 생산수단의 소유제가 개인에서 共同이나 集團所有制로 바뀌었다고 해도 개인의 意識狀態는 그에 상응해서 변하지 않고 과거의 잔재를 지속적으로 내포하고 있을 수 있다고 보았다. 같은 논리를 뒤집어 보면 비록 경제적·기술적 여건이 구비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군중의 意識은 客觀的 與件에 앞서 나갈 수 있다는 얘기도 성립한다. 이러한 견지에서 毛는 경제·기술적인 客觀的 條件보다 농민들의 集團志向的 意識狀態가 더 중요하다고 보고, 1955년에 農業合作社를 결성했으며, 大躍進運動 때도 8억의 中國人民들이 共產主義 건설의 정열에 불타고 있기 때문에 客觀的 條件의 미숙을 능히 보충하여 고차원의 발전을 이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精神力으로 物質的 基盤을 보다 높은 단계로 발전시킬 수 있다는 다분히 唯心論的 主張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⁸⁾

이와 같이 인간의 사회주의적 정신의 개혁의 강조가 극명하게 드러난 것이 바로 문화대혁명이었다.

1966년 8월 8일 中國共產黨 8期 11中全會에서 채택된 文化大革命의 강령적 문건인 '無產階級文化大革命에 관한 決定'은 文革의 目的이 "자본주의의 길을 걷고 있는 黨權派를 투쟁에 의해서 쳐부수고 資產階級的 반동적 학술 '權威者'를 비판하여 資產階級과 모든 착취계급의 이데올로기를 비판하고 교육을 개혁하여 문학·예술을 개혁하고 사회주의의 경제토대에 적합하지 않은 모든 上部構造를 개혁하여, 그로써 社會主義 제도의 강화와 발전에 기여하는 데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⁹⁾ 이는 바로 사회주의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하부구조(생산력)의 발전보다 상부구조의 개혁에 힘써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상부구조가 하부구조를 결정한다는 政治決定論的 立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毛는 大躍進 동안 우선 농업집단화를 성취시켜 生産關係를 사회주의적인 형태로 이전해야만 生産力이 해방될 수 있다는 견해를 내세웠다. 文化革命期에는 상기한 바와 같이, 經濟基礎가 이미 사회주의 생산관계로 변형되었으나 思想과 文化와 같은 上部構造는 여전히 자본주의적인 상태로 남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꾸기 위하여 文化革命이 요청된다고 했던 것이다.

이와 같이 毛澤東이 사회주의 혁명에 있어 상부구조의 변혁을 강조하는 이유는 본질적으로 毛

7) 마르크스에 의하면 인간의 의지와는 독립적으로 형성되는 역사발전 단계별 생산관계는 사회의 경제구조를 결정하며, 이는 다시 법적·정치적 상부구조 형성의 기본 토대가 된다고 한다.

Karl Marx, *A Contribution to the Critique of Political Economy* (Chicago, 1911), p.11.

8) 정종욱, *op. cit.*, pp.62~63참조.

9) 金龍河, 「中國政治論」(서울:박영사, 1985), p.73.

가 人間中心主義의 主意主義를 선호하는 점에 기인하겠으나, 중국혁명의 객관적 현실이 이를 더욱 부채질했을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하면 중공의 社會主義 형성과정이 정통 마르크스주의적 발전경로를 밟지 않았다는 점에 있다. 마르크스에 의하면 자본주의가 성숙단계에 도달하여 자본주의적 모순이 첨예화될 때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혁명의식이 성숙되며, 따라서 프롤레타리아가 주체가 되는 사회주의 혁명이 자연발생적으로 일어남으로써 사회주의가 도래하게 된다고 한다.

그러나 중공의 사회주의 혁명은 이러한 단계를 거치지 않고 기본적으로 封建制度가 지배적인 사회로부터 作爲의으로 社會主義가 형성되었다. 따라서 중공의 경우 정치엘리트가 이데올로기를 포함한 사회의 전반적인 上部構造에서 맡는 능동적 혹은 주도적 역할이 필연적으로 강조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毛澤東思想에서는 사회주의 혁명 완수를 위해서는 上部構造를 먼저 개혁해야 한다는 정치결정론적 입장을 취하는 것과는 달리, 鄧小平의 實用主義에 나타난 두드러진 특징은 역사와 경제발전에서 객관적인 법칙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강조한다는 점이다. 즉 인간의 역사가 인간의 의지와 욕구와 무관한 어떤 不變의 法則에 의해 움직여 간다고 보는 것이다. 사회의 발전은 물질세계의 발전과 동일한 것이며, 따라서 객관적 법칙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한다. 마치 일반적이고 객관적인 법칙들이 역사에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역할 수 없듯이, 사회주의 사회의 발전을 지배하는 특별한(거의 객관적인) 경제법칙이 존재한다는 것이다.¹⁰⁾

따라서 진보는 사회주의 경제발전의 객관적인 법칙을 발견하여 그것에 적합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데 달려있게 된다. 이러한 객관적인 유물론적 역사법칙에 대한 신념은 대체로 점차 마르크스 이론의 경제결정론적 해석쪽에 기울고 있는 중국 공산주의의 새로운 조류속에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이것은 사회주의를 위한 물질적 전제조건에 관련된 문제에 관한 지배적인 견해 속에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毛澤東은 사회주의로의 역사적 전환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근대적인 경제발전과정과 더불어 반드시 사회적 관계와 대중의식의 계속적인 변화과정이 수반되어야만 한다고(사실은 그것이 경제발전을 좌우한다고) 믿었던 반면에, 毛 이후의 實用主義者들은 먼저 생산력의 발전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는 것이 사회주의 사회를 위한 결정적인 전제조건이 된다는 정통 마르크스이론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더 나아가 그와 같은 필수불가결한 경제적 전제조건을 만들어 가는 과정은 기나긴 역사적 시간을 필요로 한다고 강조한다.¹¹⁾

이와 같은 역사적 발전 법칙들은 인간의 의지에 의해 바뀌어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黨의 주관적인 의도'로도 어쩔 수 없는 것이므로 인간은 객관적인 법칙들이 역사적 현실에 드리우고 있는 제약조건들을 이해해야만 하고 그것에 따라야 된다는 것이다. 사실상 이러한 주장들은 모택동시대의 경제적 실패와 정치적 혼란이 인간의 의지 및 의식 등의 요소들에 대한 지나친 강조와, 사회적 생산관계의 성급한 변혁들로부터 초래된 것이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上部構造가 역사발전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생각은 이제 임표와 4인방에 의해 선전

10) Maurice Meisner, *op. cit.*, pp. 218.

11) *Ibid.*, p. 219.

된 반동적 이론으로 비판되고 있다.¹²⁾

이러한 맥락에서 實用主義者들은 사회주의적 미래가 궁극적으로 객관적인 역사·경제적 법칙들의 비인격적인 작동에 의해 달성되어야 한다고 본다. 더구나 바로 生産力을 최고 수준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진정한 社會主義 사회의 도래를 위한 최우선적이고 근본적인 처방이라는 반복적인 주장은 그 과정의 장기성과 비인격성이라는 두가지 특징을 모두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중국은 가난하고 후진적인 국가이기 때문에 가야할 길은 멀고 험한 길이며, 최후의 목적지는 머나먼 곳에 있다. 그러한 와중에서 인간의 에너지는 전적으로 생산적 작업에 투입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社會主義를 건설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에 필수적 전제조건인 경제적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¹³⁾

따라서, 오늘날 중공의 實用主義者들의 정신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역사발전에 관한 혁명적 개념이 아니라 진보적인 개념이며, 또한 그것은 인간의 욕망과 이상적인 희망들에 의해 좌우되지 않고 객관적인 법칙들에 의해 좌우된다는 신념이다. 결국 이러한 생각은 중공이 사회주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인민들의 사회주의적 정신무장보다도 우선 경제적 낙후성을 극복하기 위해 생산력의 발전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는 經濟決定論的 立場이라고 풀이할 수 있을 것이다. 1984년 10월 中國共產黨 12期 3中全會의 ‘經濟體制改革에 관한 決定’은 이를 좀더 명확히 말하고 있다:

“사회주의 사회의 근본적인 모순은 여전히 생산관계와 생산력, 상층건축과 경제기초간의 모순이다. 우리의 경제체제 개혁은 사회주의 원칙을 고수한다는 전제 아래 생산관계와 상층건축 중에서 생산력의 발전에 맞지 않는 일련의 서로 연결된 고리와 분야를 개혁하는 것이다. …… 社會主義의 근본적 임무는 사회생산력 발전으로 사회의 富를 증대시켜 인민의 날로 증가하는 물질적 수요와 문화적 수요를 부단히 충족시키는 것이다. 사회주의는 빈궁을 없애야 하며 빈궁을 사회주의로 간주해서는 안된다. 최대의 의지로써 역량을 집중하여 경제건설을 진행하고, 공업·농업·국방 및 과학기술의 현대화를 실현한다는 결심으로 임해야 한다. 이것은 역사의 필연이며 인민의 소망이다. 전당의 동지는 개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마르크스주의의 이러한 기본적 관점을 분명하게 파악하고 사회생산력의 발전에 유리한가의 여부를 모든 개혁의 득실과 성패를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¹⁴⁾

2. 階級鬭爭 대 階級和合

상술한 바와 같이, 上部構造의 의식개조를 강조하는 毛澤東思想은 사회주의 체제하에서도 끊임없는 계급투쟁과 不斷革命을 강조한다. 반면 鄧小平의 實用主義는 사회주의하에서는 계급투쟁이

12) *Ibid.*, p. 220.

13) *Ibid.*, p. 220~221.

14) 방점은 필자의 것. “關於經濟體制改革的決定,” 「人民日報」, 1984. 10. 21. 우리말 번역은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경제체제의 개혁과 중국식 사회주의,” 유세회편, 「오늘의 中國大陸」(서울: 한길사, 1984), p. 268참조.

이미 소멸했다고 보고, 계급화합을 강조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논의를 상세히 고찰하기로 한다.

우선, 마르크스와 레닌은 일단 사회주의체제가 성립되면 프롤레타리아계급의 독재로 계급투쟁은 종식되는 것으로 본데 반하여, 毛澤東은 사회주의 체제내에서도 프롤레타리아계급에 적대되는 계급이 출현될 수 있다고 보고 이러한 요소의 제거를 위해서는 끊임없이 혁명을 일으켜야 한다고 주장한다.¹⁵⁾

이러한 毛澤東의 계급투쟁론이나 不斷革命論은 모든 현상을 대립과 갈등으로 보는 그의 ‘矛盾論’에 근거한 것이다. 그의 ‘矛盾論’¹⁶⁾은 우선 矛盾의 보편성을 강조한다. 자연계의 변화는 주로 자연계에 내재하고 있는 內部的 矛盾의 발전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며, 사회적 변화는 주로 사회의 內部的 矛盾의 발전, 다시 말하면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모순, 계급 상호간의 矛盾, 새로운 것과 낡은 것 사이의 矛盾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서, 이들 사회의 내부적 모순의 발전이야말로 모든 사회가 발전하는 원동력이고 그러한 矛盾의 法則이 바로 社會發展의 法則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矛盾은 자연계, 인간사회를 막론하고 어떠한 사물에 있어서나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서, 특히 인간사회에 있어서 矛盾없는 사회란 있을 수 없다. 봉건사회는 봉건사회 대로의 모순을 가지며, 자본주의사회는 자본주의사회대로의 모순, 그리고 사회주의사회에 있어서도 역시 그것 대로의 矛盾을 내포하고 있다고 毛澤東은 설명한다.¹⁷⁾ 그러므로 모순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은 변증법을 부인하는 것이다. 서로 다른 사회의 모순은 그것의 해결책이 다른 것처럼 성격면에서도 서로 다르다. 그러나 어떤 시대의 社會도 끊임없는 모순을 통하여 발전해간다. 사회주의사회도 역시 생산력과 생산관계 사이의 모순을 통해 발전한다. 이상주의(idealism)와 유물주의(materialism)간의 모순이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소멸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다. 즉, 주관과 객관 사이, 선진국과 후진국 사이, 생산력과 생산관계 사이의 矛盾이 상존하는 한 유물주의와 이상주의 사이의 모순은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사회에서도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것이다.¹⁸⁾ 이처럼 어떠한 사회의 어떠한 요소에도 矛盾은 보편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곧 그러한 모순을 해결하고자 하는 운동이 보편적으로 恒存함을 의미한다. 인간사회에 있어서 內部矛盾을 해결하고자 하는 運動은 바로 革命이다. 따라서 모든 사회는 革命의 가능성을 안고 있으며, 사회가 각종의 矛盾을 안고 있는 한, 不斷한 革命의 필연성과 필요성을 내포하기 마련이라는 것이 바로 毛澤東의 矛盾理論의 귀결점이 된다.

그러므로 毛澤東에 의하면 중국이 비록 사회주의의 단계에 도달하였다고 할지라도 새로운 矛盾은 끊임없이 발생하므로, 그러한 모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해결하는 투쟁도 부단히 계속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투쟁의 방법도 천편일률적인 것이 아니라 해결지어야할 矛盾의 質에 따라 相異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革命 투쟁의 복잡성과 아울러 長期성과 不斷性

15) 유세희, “中共의 이데올로기적 변화: 毛澤東의 毛思想과 鄧小平의 毛思想,” *op. cit.*, p. 23.

16) 「毛澤東選集」, 제1권, pp. 287~326 참조: 자세한 논의는 金河龍, *op. cit.*, pp. 89~109 참조.

17) 「毛澤東選集」, 제1권, p. 295. 金河龍, *ibid.*, p. 89에서 재인용.

18) Stuart R. Schram, *The Political Thought of Mao Tse-tung* (London: Frederick A. Praeger, Publisher, 1963), p. 236.

은 사회주의국가에 있어서도 불가피하다는 것이 毛澤東의 革命理論의 토대를 이룬다.¹⁹⁾

예컨대, 중국공산당이 중국대륙을 석권한 후, 사회주의 건설을 추진하는 단계에 있어서도 계급과 계급모순 및 계급투쟁이 계속 존재한다고 모택동은 보았으며, 그것이 그들이 정권 수립 후 여러 차례에 걸쳐 정치·사상·문화영역에서 整風運動을 전개하게 된 이유라고 설명한다. 毛澤東은 계급이 단순한 생산수단의 소유관계에 기초하여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구성원의 意識, 思想 및 態度에 근거하는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자본주의 사상과 태도를 씻어버리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계급투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비록 사회주의 제도가 기본적으로 확립되어, 생산수단 소유제를 개조하는 면에서는 근본적으로 승리하였다고 할지라도, 思想·이데올로기의 면에서 無產階級·資產階級 중 어느 쪽이 이기고 지는가 하는 문제는 아직도 해결되어 있지 않으며, 따라서 장기간의 투쟁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그 승리가 확정지어지는 문제라고 보았다.²⁰⁾

이 주장이 가장 뚜렷이 부각되었던 것이 大躍進期에 선전되었던 이른바 '3面紅旗'와 文化革命期에 주장된 '無產階級獨裁하의 繼續的 革命論'이다. 대약진 및 人民公社가 추진되고 있는 동안 毛는 '不斷革命論'을 제창했다. 혁명은 과도처럼 기복을 갖지만 부단히 계속해야만 변혁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계급투쟁을 그치지 말아야 하며, 사회주의로 이전되는 과도기에서도 그러한 투쟁은 계속되고 生産手段이 集團化된 뒤에도 존재한다는 것을 毛는 강조했다. 이른바 敵과 我간에는 폭력적인 투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즉 무산계급독재하에서도 그러한 투쟁을 계속해야만 혁명을 완수할 수 있다고 보고, 문화혁명기간 동안 홍위병으로 하여금 관료화된 黨權派를 공격하게 했던 것이다.

이상의 矛盾論에 기초한 不斷革命論은 모순의 해결이 兩者간의 調和나 和合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투쟁이나 갈등을 통해 기본적으로 강자가 약자를 제거함으로써 이루어진다는 '一分爲二論'에 기초한다. 唯物辨證法은 定立→反定立→綜合으로 한 단계의 발전이 완성되면, 다시 綜合이 定立이 되어 反定立으로 계속 발전해 나가는 과정이며, 定立에서 反定立이 분리되어 대립되는 소위 '一分爲二'의 과정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一分爲二'는 혁명적 唯物辨證法의 철학이며 無產階級의 세계관이다. 무산계급은 그러한 세계관에 의해서 사물을 관찰한다. 모순은 사물 그 자체의 고유한 것이며, 모순의 두 측면은 통일되어 있기도 하고 서로 투쟁하고 있기도 하며, 모순은 사물의 발전을 촉진시키는 원동력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립면의 통일성은 상대적인 것이며 대립면의 투쟁은 절대적인 것이다. 그 때문에 유물변증법의 임무는 원래 矛盾을 덜어 숨기는 것이 아니라, 모순을 폭로하고 모순해결의 올바른 방법을 찾아내고, 모순의 轉化를 촉진시킴으로써 세계를 혁명적으로 변혁시키는 목적을 완수하는 데 있다. 그러므로 무산계급이 이러한 세계관에 의해서 계급사회를 분석하는 것은 계급모순과 계급투쟁을 인식하여 계급투쟁이 사회발전의 원동력을 자각하고, 계급투쟁을 끝까지 수행하여 사회변혁을 실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이다.²¹⁾

반면, 鄧小平의 實用主義의 계급 및 계급투쟁에 대한 견해는 이와는 매우 대조적이다. 실용주

19) 김하룡, *ibid.*, p. 90.

20) *Ibid.*, p. 102; 안병준, 「中共政治外交論」(서울: 박영사, 1986), pp. 241~242.

21) 김하룡, *ibid.*, pp. 100~101 참조.

의자들은 정치적·사상적 태도에 따라 계급을 규정하는 毛澤東思想의 견해는 마르크스의 계급론을 왜곡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계급이란 사회의 경제구조에서 점유하는 개인의 위치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므로 중국사회의 경제구조가 변모된 1956년 이후의 계급과 계급관계를 사회주의 개조가 있기 이전의 계급관계와 동일시하는 것은 비마르크스적 견해라고 본다. 다시 말하면, 프롤레타리아專政이 확립되고 집단화와 국유화와 같은 사회주의 개조가 완결된 1956년에 사회주의 혁명은 사실상 종결되었으며, 대규모의 계급투쟁을 더 이상 계속할 근거가 없어졌다는 것이다. 즉, 사유재산제도가 근본적으로 제약되고 집체경제가 절대적인 우위를 확보한 중국사회에서 계급투쟁이 계속되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실용주의노선에 의하면, 사회주의 사회의 주요 모순은 계급간의 모순과 갈등이 아니라 경제생활의 향상을 바라는 대중들의 요구와, 그에 부응할 수 없는 중국의 경제적 낙후성에서 파생되는 모순이라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중국사회가 당면한 최대의 과제는 모든 계층이 협력·단결하여 경제발전을 이룩하는 것이라고 선언했던 것이다.²²⁾

이러한 實用主義파의 주장은 唯物辨證法에 대한 또 하나의 해석인 ‘合二而一論’²³⁾에 근거한 것인데, 이는 모순의 해결이 양자의 調和와 和合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해석이다. 즉, ‘二가 합해서 一이 된다’는 주장은 唯物辨證法이 定立에서 反定立이 분리되어 대립되는 소위 ‘一分爲二’의 과정을 포함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또한 동시에 定立과 反定立의 二者가 합쳐서 綜合의 一로 이루어지는 統合의 과정을 내포한다. 따라서 유물변증법은 전자인 ‘一分爲二’ 과정보다는 후자인 ‘合二而一’의 과정이 그 본질을 이룬다는 것이다. 즉 ‘對立面的 統一’ ‘矛盾의 統一’이라는 것은 두개의 對立面이 불가분으로 결부되어 있다는 의미이다.

이 ‘合二而一論’은 矛盾의 對立, 즉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두 노선 사이의 투쟁, 무산계급과 자산계급 두 계급 사이의 대립을 본질적으로 발전의 원동력으로 보는 毛澤東思想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矛盾調和·鬭爭否定的 변증법이론이었으며, 따라서 階級調和을 앞세우는 劉少奇, 鄧小平 등의 調整政策을 유물변증법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 이론적 기초를 마련하는 것이었다.

이와 같이 계급투쟁을 부정하는 주장은 상기단 바의 1978년 11기 3중전회뿐만 아니라 1979년 6월 제5기 全國人民代表大會 제2차 회의시 현 중공 당국의 정부활동보고에서도 명백히 드러났다. 즉, “계급으로서의 지주계급·부농계급은 이미 소멸하였다. 계급으로서의 자본가도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 이들 계급 가운데 노동능력이 있는 압도적 다수는 이미 자기가 일해서 먹고 사

22) 1978년 제11기 3中全會에서 중국 공산당은 계급투쟁의 종식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외적의 침략이 없는 한 중공당의 중심과제는 경제발전과 4개 현대화를 달성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人民日報」, 1978. 12. 24. 徐鎮英, “毛澤東의 政治經濟學과 4個現代化 政策의 發展理論比較,” 「中國學論叢」, 고려대 중국문제연구소, 1984년 4월, pp. 137~138에서 재인용.

23) ‘合二而一論’은 1963년 중국공산당 고급당학교 교장이었던 楊獻珍이 주장한 것인데, 이로 인해 毛澤東派의 反毛派에 대한 비판이 거세게 일어나게 되었다. 자세한 논의는 김하룡, *op. cit.*, pp. 98~101 참조.

‘合二而一論’에 대한 비판에 관해서 D.W. Fokkema, “Chinese Criticism of Humanism: Campaign Against the Intellectuals, 1964~1965,” *The China Quarterly*, No. 26 (April-June 1966), pp. 71~74 참조.

는 노동자로 개조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四人幫의 잔존자나 잘 개조되지 않은 극히 소수의 지주, 낡은 착취계급의 일부 잔존자들에 대해서는 무산계급독재를 실행해야 한다. …그러나 금후 대규모의 대중적 계급투쟁을 진행시킬 필요는 없고 또 그렇게 해서도 안된다”²⁴⁾고 천명했던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중공 현당국의 계급분석은 사회주의 단계에 있어서도 자산계급과 무산계급 사이의 대립·모순은 엄연히 존재하며, 끊임없이 계급투쟁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毛澤東의 不斷革命 및 矛盾論을 크게 수정한 것이며, 결국 毛가 배격하였던 階級和合의 ‘合二而一論’으로 복귀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3. 平等主義 대 能率主義

앞에서 서술한 路線의 대조는 政策의 내용에서도 잘 반영되었다. 毛澤東思想은 정책목표로서 平等의 실현을 삼지만, 實用主義는 能率을 극대화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계급투쟁 자체가 결국 계급없는 共產主義社會를 목표로 삼고 추진하는 것이므로 平等을 중시하지 않을 수 없다. 반면 實用主義는 經濟第一主義로서 現代化를 목표로 하므로 생산과 조직에 있어서 能率을 중시하게 된다.

平等主義는 毛思想에 일관되게 흐르는 하나의 주제이다. 대약진을 촉진했을 때 毛는 도시와 농촌, 근로자와 농민, 정신노동과 육체노동 간에 격차를 없애고 모든 사람들이 필요에 따라 원하는 바를 가질 수 있는 共產主義社會를 앞질러 실현하려고 기도했던 것이다. 이것이 제도적으로 나타났던 것이 1958년의 ‘人民公社’²⁵⁾였다.

경제정책에 있어서 毛는 國家計劃과 集團人原則을 강조하는 바, 인민공사가 대단위로 조직되었던 1958년 말 한 때 자유시장을 전면 중단한 적이 있었다. 약 5천호로 구성된 人民公社는 모든 생활을 집단화했다. 즉, 인민공사가 결성된 후에는 모든 토지를 집단화했고, 개인이 경작하던 自留地마저도 몰수한 적이 있었다. 공장생산도 국유화된 공장에서 근로자는 위에서 내려온 국가 계획에 의거하여 생산을 할 수 밖에 없었다.²⁶⁾

이른바 毛澤東이 추구하는 사회주의사회란 모든 불평등이 점차로 소멸되는 사회이어야 하기 때문에, 경제정책에서도 富의 창조, 즉 生産力의 증가라는 문제보다도 共同富裕의 공산주의사회로의 접근이란 차원에서 富의 균등분배문제를 더욱 중요시했다고 하겠다. 따라서 毛思想은 부

24) 「人民日報」, 1970. 6. 26.

25) 人民公社는 집단소유제의 기초위에 농업, 공업 및 상업이 결합된 사회주의적인 경제조직이다. 인민공사는 1958년에 毛澤東이 ‘三面紅旗’ 정책의 하나로 몇몇 高級農業生產合作社를 연합하여 만든 조직이며, 三級(人民公社, 生產大隊, 生產隊) 所有制를 채용하였고 생산대를 기본 재산단위로 한다. 인민공사는 政社合一(정치권력과 경제조직의 일체화)의 조직으로서 농촌의 기층행정 단위가기도 하다.

極東問題研究所편, 「中共用語·情報辭典」(서울:극동문제연구소, 1986), p. 381참조.

26) 안병준, *op. cit.*, p. 245.

의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는 個體經濟의 활동범위를 가능한 억제하고 集團經濟의 역할을 확대하려고 하는가 하면, 산업구조의 불균형발전과 集體와 集體, 또는 個人과 個人간의 불평등을 점차로 감소시킬 수 있는 경제정책을 강조한다.²⁷⁾ 예를 들면 集體所有權의 범위가 넓고 규모가 큰 소위 ‘一大, 二公’의 人民公社의 우수성을 강조한다든가 또는 按勞分配의 社會主義 分配法則을 근본적으로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소득의 불평등을 억제하고 대중의 물질주의적 성향을 극소화할 수 있는 大槩式 分配制度를 확대·실시하려고 하였던 것이다.²⁸⁾

이와 같은 毛思想의 平等主義의 경향은 비단 분배정책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경제정책 분야와 사회·문화정책에서도 나타났다. 이를테면 과학 및 교육정책에 있어서도 毛는 노동의 중요성을 지적했다. 과학의 대중화를 장려하며 과학자들은 노동과 결합하여 연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학의 경우에도 농촌에서 많은 농민들이 앓고 있는 일반적인 병을 치료할 수 있도록 흔한 문제를 연구하고 가르쳐야 한다. 학생들은 공부와 작업을 겸해서 실시하여 노동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체험해야만 했다. 이러한 학생들의 上山下鄉政策, 간부의 노동참가, 그리고 농촌의 赤脚醫生(맨발의 의사)과 같은 정책은 모두 平等主義의 정책정향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²⁹⁾

한편, 鄧小平의 實用主義는 毛澤東에 의해 강조된 지나친 平等主義가 공산주의자들이 최종목표로 하는 이상적인 유토피아적 共產社會에서나 실현될 수 있는 것으로서, 한참 사회주의를 건설해 가야 할 현단계로서는 부적합하다고 본다. 平等主義는 노동의 내용이나 실적에 관계없이 균등한 물질적 반대급부를 제공하여 줌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일에 대한 의욕과 창의성을 잃게 만들고 서로 남에게 일을 미루게 만든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생산에 있어서 효율을 높일 수 없고 낭비를 가져오게 된다고 한다.

生産力의 발전에 최고목표를 두고 있는 實用主義는 생산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을 하지 않아도 국가가 밥을 먹여주는 던저도 깨지지 않는 쇠밥그릇(鐵飯碗)을 깨어 버려야 된다고 주장한다. 쇠밥그릇은 천천일물적으로 똑같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의 실적에 따라 크기도 달라야 하고 밥그릇에 담기는 음식의 내용도 달라야 한다는 것이다.³⁰⁾ 이러한 실적에 따른 배분이 라는 能率主義政策은 1984년 10월 中共黨 第12期 3中全會에서 채택된 ‘경제체제개혁에 관한 결정’에서 다음과 같이 명백히 밝히고 있다:

“.....기업의 내부에서는 임금과 직급의 차이를 확대하여 근면을 장려하며 나태는 벌하고 우수한 자를 장려하며 열등한 자는 벌함을 충분히 나타내어야 한다. 또한 많이 일하면 많은 보수를 지급하고 적게 일하면 적은 보수를 지급해야 하며, 두뇌노동과 육체노동, 복잡노동과 단순노동, 숙련노동

27) 郭大江, “走社會主義 共同富裕的道路,” 「人民日報」, 1975. 8. 9. 徐鎮英, *op. cit.*, p. 133에서 재인용.

28) 大槩式 분배제도란 自我評價와 공개토론을 통하여 집단내부의 화합을 꾀하며 도덕적 작업동기를 부여하는 것이다. 즉, 모든 농민은 같은 工分(작업점수)을 받기 때문에 힘센 농부와 약한 농부 사이의 소득격차는 적으며, 일 잘하는 농민은 더 열심히 일하려는 자극을 상실하게 된다. 李相俊, 「中共經濟論」(서울: 박영사, 1985), p. 129참조.

29) 안병준, *op. cit.*, p. 246; 서진영, *op. cit.*, pp. 134~135참조.

30) 유세희, *op. cit.*, p. 25.

과 미숙련노동, 힘든 노동과 힘들지 않은 노동과의 차이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특히 두뇌노동의 보수가 지나치게 낮은 상태를 시정해야 한다. 국가기관과 사업단위로 임금제도를 개혁해야 하는 데 개혁의 원칙은 근로자의 임금과 본인이 지고 있는 책임 및 업적을 밀접하게 연관시키는 것이다. ……장기간 동안 소비재의 분배문제에 있어서 아마도 사회주의는 평균적이어야 한다는 오해가 존재하였다. 일부 사회성원의 수입이 비교적 많아져서, 차츰 차이가 발생하면 이것은 양극적인 분리이며, 사회주의에 위배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평균주의의 사상은 마르크스적 사회주의에 관한 과학적 관점과 완전히 용납되지 않는다. 평균주의 사상은 노동에 따른 분배원칙을 시행하는 데 심각한 장애이며 평균주의의 범람은 필연적으로 사회생산력을 파괴한다는 것을 역사의 교훈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 사회주의 사회는 당연히 사회 성원의 물질과 문화생활 수준을 점차 제고하여 모두가 부유해지는 목표의 달성을 보장해야 한다. 그러나 모두가 함께 부유해지는 것은 완전한 평균과는 다르며 완전한 평균일 수도 없다. 또한 모든 사회성원이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속도로 부유해지는 것과는 다르며 그럴 수도 없다. 만약 공동의 부유를 완전한 평균과 동일한 속도의 부유로 이해한다면, 이것은 가능하지도 않으며 반드시 공동의 빈곤을 초래할 것이다. 일부지역, 일부기업 및 일부 사람이 근면하게 노동하여 먼저 부유해져야만 대다수 사람에게 강력한 호소와 고무적인 작용을 할 수 있으며, 그리하여 갈수록 많은 사람이 한 파도 한 파도씩(一浪接一浪) 부유해질 수 있다. ……일부 사람이 먼저 부유해짐으로써 발생한 차이는 전체 사회성원이 공동으로 부유해지는 과정에 있어서 시간적 선후, 빠르고 늦음의 차이이며, 결코 극소수가 착취자가 되고 대다수가 빈곤해 지는 양극적 분화가 아니다. 일부 사람을 격려하여 먼저 부유하게 하는 정책은 사회주의 발전법칙에 부합하며, 전체사회가 부유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길이다.”³¹⁾

이와 같은 업적이나 능력에 따른 차등 배분의 원칙 천명은 현재 중공 당국이 추진중인 企業自主權의 확대, 市場調節機能의 도입, 가격체제의 합리화, 경제책임제와 노동에 따른 분배, 농촌에 있어서의 包產到戶制에 의한 인민공사의 해체와 脫集團化 등의 政策 속에 구현되고 있으며, 이는 다분히 물질적 유인과 직결되는 能率主義에 따른 결과인 것이다.

能率主義에 따른 당연한 귀결로서, 實用主義는 전문지식을 강조하며 전문가에 대한 우대를 주장한다. 이는 毛澤東이 교육 및 관료체제에 있어 공산주의 사상을 중시하는 ‘紅’에 치중하여 전문지식 계층에 대해 기본적으로 불신했던 것과는 달리, 鄧의 實用主義는 전문지식인 등의 ‘專’을 더 중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다.

이상에서 우리는 毛澤東思想과 實用主義가 사회주의관, 노선 및 政策 면에서 매우 대조적인 정향을 보이고 있음을 고찰해 보았다. 즉, 毛澤東思想의 특징을 政治優先主義, 主意主義, 階級鬭爭 및 平等主義로 요약할 수 있다면, 鄧小平의 實用主義의 특징은 經濟決定主義, 唯物主義, 階級和合 및 能率主義로 압축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實用主義는 社會關係와 上部構造는 생산력의 발전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에, 능력주의를 강조하며, 따라서 생산력의 발전을 우선시하는 ‘經濟第一主義’의 입장이라고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이론에 입각한 實用主義路線이 지향하는 이데올로기적 성격이 어떠한 것인지는 장을 바꾸어서 고찰해 보기로 한다.

31) “關於經濟體制改革的決定,” *op. cit.*, pp. 279~280.

Ⅲ. 實用主義路線의 이데올로기적 性格

앞에서 우리는 實用主義가 毛澤東思想과 사회주의관, 노선 및 정책면에서 상당히 대조적인 정향을 보이고 있음을 고찰하였다. 그리고 그것은 生産力의 발전을 우선시하는 經濟第一主義를 추구하는 理念임을 보았다. 그런데 鄧小平은 毛思想을 부정할 경우 사회 각처에 도사리고 있는 文革勢力은 물론, 구체제에 의해 이득을 보아온 세력과 신체제의 권력 개편 과정에서 탈락된 정치 엘리트들이 연합하여 반발한 가능성을 감안, 그의 이데올로기적 근거를 毛澤東思想에서 찾고 있다.

특히, 鄧小平은 毛澤東의 ‘實踐論’에서 그의 理念的 근거를 찾고 있는 바, 즉 ‘實踐은 진리를 검증하는 유일한 기준이다.’³²⁾는 ‘實事求是’ 原則을 과거에 毛澤東이 강조했다는 사실에서 도출함으로써, 그들이 毛思想에 충실한 것으로 정당화하고 있는 것이다.³³⁾ 이른바 實事求是의 명제를 毛思想의 핵심으로 내세웠다. 그리고 이 ‘實事求是’의 입장에서 毛澤東의 과거 정책들 특히 文化大革命을 비판하였다. 다시 말해서 文化大革命은 毛思想을 중국의 구체적 현실 속에서 實踐에 의하여 검증함이 없이 적용하는 教條化 경향 때문에 나타난 큰 실책이라고 단정지음으로써 毛澤東無過誤를 주장하는 凡是論을 부정하였던 것이다.³⁴⁾

毛澤東이 말한 ‘實事求是’는 현실에서 출발하여 理論과 實際를 결부시키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마르크스·레닌主義의 理論과 中國革命이라는 구체적 현실을 결부시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하여 鄧小平은 毛澤東思想과 社會主義 現代化라는 中國의 현실을 결부시키는 것이야말로 오늘의 中國의 狀況에 맞는 ‘實事求是’라고 단정하였다.³⁵⁾ 다시 말해서 社會主義改造가 기본적으로 달성된 오늘날에 있어서 中國이 해결해야 할 일은 나날이 증대하는 인민의 물질적·문화적 욕망과 뒤떨어진 사회적 생산과의 차이를 메우는 것이라고 못박았다. 따라서 黨과 國家는 경제 건설을 중심으로 하는 社會主義的 現代化에 모든 역량을 결집시켜 생산을 증대하고 이것을 토대로 人民의 물질적·문화적 생활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요컨대, 中國의 現代化를 위해서는 이러한 ‘實事求是’의 원칙을 바탕으로 하여 세계 각국과의 관계를 적극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며, 특히 지금과 같이 실제적인 상황이 많이 변화된 상황하에서는 資本主義國家들과의 교류를 확대하며, 民資의 유치와 經營合資 등과 같은 경제무역 관계의 발전을 비롯한 중국과 외국과의 기술교류의 확대 등은 곧 ‘實事求是’를 내용으로 하는 毛澤

32) “實事求是·一切從實際出發·理論聯繫實際·堅持實踐是檢真理標準·這就是我個黨的 思想路線”을 말한다. 鄧小平, “解放思想, 實事求是, 團結一致向前看,” 「鄧小平文選(1975~1982)」(北京: 人民出版社, 1983), p.133참조.

33) Stuart R. Schram, “Economic in Command?,” *op. cit.*, p. 418.

34) 徐鎮英譯, 「現代中國의 政治와 社會變動」(서울: 고려대학교 출판부, 1986), p. 11.

35) *Ibid.*, p. 17.

東思想의 정확한 해석이라는 것이다.³⁶⁾

그런데 이와 같이 毛思想을 現政權이 추진하는 정책의 입장에서 재해석하여 합리화하고 있는 實用主義路線은 鄧小平의 집권이후, 그가 추진하고 있는 改革政策 속에 구현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개혁정책을 중심으로 實用主義路線의 이데올로기적 성격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毛死後 집권한 華國鋒은 석유생산을 급증시켜 중화학공업을 적극 장려함으로써 現代化를 시도하려고 했다. 그러나 이 계획은 많은 무리를 내포했기 때문에, 결국 실패함으로써 華國鋒이 퇴진하는 계기가 되었다. 1978년 12월 中國共產黨 제11기 3中全會에서 實權을 장악한 鄧小平은 대대적인 調整(adjustment)을 감행하지 않을 수 없었다. 調整이란 소비에트모델로써는 중공의 필요를 정확하게 실현시키지 못했고, 또한 과도한 毛澤東노선으로 인해 그 역기능이 심화되어 온 경제체제의 결점을 치유하기 위한 것인 바, 이 調整政策은 우선 농업생산을 제고하고 그 다음에 경공업을 진흥시켜 소비재 및 원료의 공급을 늘리게 했으며, 이어 중공의 에너지와 운수사정에 알맞도록 重化學工業을 진작시키는 것이었다.

이러한 調整政策이 성과를 나타내자 鄧小平의 영도하에서 경제의 구조적인 改革(reform)을 시도하기에 이르렀다. 농업부문에서는 ‘生産責任制’를 도입하여 脫集團化를 추진하였으며,³⁷⁾ 농민들에게는 私有地의 폭을 확대시켜 주었다.³⁸⁾ 이것의 도입목적은 자유시장의 역할을 회복하고 物的 誘因을 확보함으로써 농업생산을 증대시키자는 것이었다.³⁹⁾ 그리고 산업 및 도시부문에 대해서도 비교적 제한적인 改革이 이루어졌다. 일부 기업들은 보다 많은 재정적 자유를 누리게 되었고 의사결정권이 강화되었던 것이다. 또한 국내에서 이러한 과감한 개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대외적으로 經濟開放政策을 추진·확대했던 것이다.⁴⁰⁾

36) 「鄧小平文選」, p. 122. 趙政男, “共產主義 이데올로기와 開放化政策: 鄧小平體制的 統治理念分析,” 「東亞研究」, 제8집(1986년 7월), p. 96에서 재인용.

37) 生産責任制는 인민공사의 하루조작인 생산대에 속해 있는 개별농민이나 自願農民으로 구성된 특별한 작업집단이 생산할당량과 보상에 관하여 생산대와 계약을 맺는 제도이다. 농민이 할당량 이상으로 초과 달성하면 포상을 받고, 할당량에 미달하면 어떤 벌칙을 받는다. 이와 같이 토지는 집단소유로 남겨둔 채 성취한 작업과 농민의 소득을 연결함으로써 일정한 수준의 책임을 창출해 내고, 종래의 집단노동에 의한 과업목표 달성 방식에서 가족내지는 소작업집단에 의한 자발적 영농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생산농가별청부제인 ‘包產到戶制’과 경영농가별청부제인 ‘包幹到戶制’가 있다. 李相俊, *op. cit.*, p. 360참조. 그리고 包產到戶制와 包幹到戶制에 대해서는 Chu-yuan Cheng, “Economic Reform in Mainland China: Consequences and Prospects,” *Issues & Studies*, Vol. 22, No.12 (Dec. 1986), pp. 16~17참조.

1984년말 현재 생산책임제는 대략 96.6%의 농가에 보급되고 있다고 한다. 「中國海關統計」(홍콩: 경제도보사, 1986), p. 79참조.

38) 私有地의 면적은 1978년 총경작지의 5.7%, 1980년 7.1%로 증가했으며 1981년 3월 중반에는 그 상한을 총경작지의 15%까지 올리기로 결정하였다.

Kenneth R. Walker, “Chinese Agriculture During the Period of the Readjustment, 1978-83,” *The China Quarterly*, No. 100 (Dec. 1984), p. 789참조.

39) 생산책임제 도입이후 곡물생산량이 증가했는데, 1978년의 30,477만톤에서 1983년에는 38,728만톤으로 27% 상승했다. 「中國統計年鑑」, 1984년판 참조.

40) 調整과 改革에 대한 간략한 논의는 마리·클레르 베르제르, “中共: 革命에서 改革까지,” 「中共의 改革政治」(서울: 경남대 국동문제연구소, 1985), pp. 94~109참조.

이와 같은 농업부문 중심의 調整·改革政策이 어느 정도 성공하게 되자 중공 당국은 도시 기업부문의 발전을 꾀하기 위해 전반적인 改革政策을 수립했는데, 이것이 바로 1984년 10월 中國共產黨 제12기 3中全會에서 발표된 ‘關於經濟體制改革的決定’이다.⁴¹⁾ 이 경제개혁 정책에서 중공 당국은 중국의 특색을 갖추고, 생기와 활력으로 가득찬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수립하며 사회생산력의 발전을 촉진시키는 것이 이번 개혁의 기본 임무라고 천명하고, 다음과 같은 개혁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① 기업의 활력증진을 위한 기업자주권의 확대와 노동자의 주인으로서의 지위 보장, ② 가치법칙을 고려하여 운용되는 계획체제에 입각한 사회주의 상품경제의 발전, ③ 자유가격의 범위를 점차 확대하는 합리적 가격체제의 수립, ④ 각급 정부가 기업을 직접 경영하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정부와 기업의 직책분리, ⑤ 경제책임제의 확립과 노동에 따른 분배원칙, 즉 공장장 책임제의 시행, 노동조합조직과 근로자의 대표가 기업의 중대한 결정과 행정에 대한 감독 및 평균주의 사상의 불식, ⑥ 대외적 경제기술 교류확대, 즉 대외개방을 장기적인 기본국책으로하여 대외경제기술교류와 합작규모의 적극 확대, 경제특구 및 연안항구도시 개방 확대, ⑦ 당의 영도를 강화하여 개혁의 순조로운 진행보장 등이다.⁴²⁾

이러한 경제개혁의 주요 초점은 그 동안의 지령성 계획을 지양하고 지도성 계획경제로 전환함으로써 개인 및 기업의 경제적 동기부여를 확대하여 고급화된 ‘사회주의 상품경제’를 확립하려는 데 있다고 한다. ‘사회주의 상품경제’란 진정한 價値의 法則(the law of value)에 입각하여 생산되고 교환될 수 있도록 계획경제의 부문을 최소한도로 줄이는 것이다.⁴³⁾ 즉 개인과 집단은 그들이 창출한 가치만큼 응분의 댓가를 받아야 하며 모두 함께 한 솥의 밥을 다 먹어버리는 ‘吃大鍋飯’의 불합리성을 지양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경제적인 경영을 실현하기 위해 기업의 자율권을 보장하여 경영의 합리화를 기도하고, 당과 기업, 정부와 기업을 분리함으로써 기업이 당과 국가의 통제에서 벗어나 계획·생산 및 분배에 있어 자유로운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특히 가격결정에 있어 價値의 法則을 인정할 경우에는 이는 곧 시장의 역할을 강화시켜주는 것이며, 따라서 국가의 가격결정권을 약화시키고, 경제적 탈중앙집권화의 길을 마련해주는 것이다.⁴⁴⁾ 이러한 중국식 사회주의 상품경제는 유고슬라비아나 헝가리의 ‘市場社會主義’⁴⁵⁾(market socialism)와 매우 유사한 점을 보인다. 유고의 사회주의는 기업을 국가소유로 하지 않고, 생산의 사회화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동자와 농민의 자치관리를 실시하는 동시에 자본주의적인 시장경

41) “關於經濟體制改革的決定,” *op. cit.*, pp. 263~286참조.

42) *Ibid*

43) Kent M. Wiedemann, “China in the Vanguard of a New Socialism.” *Asian Survey*, Vol. XXVI, No.7 (July 1986), p.784.

44) *Loc. cit.*

45) 유고의 ‘시장사회주의’의 주요 내용은 ① 노동자의 자치관리(self-government), ② 제시적계획(indicative planning), ③ 시장기구에 의한 자원배분, ④ 가격형성에 있어 시장의 역할제고, ⑤ 투자 등 기업의 의사결정의 독립성 제고, ⑥ 이윤과 은행대부에 의한 기업의 투자재원 형성, ⑦ 외국무역의 자유화 등이다. 安秉永, 「現代共產主義研究」(서울:한길사, 1982), pp. 197~198; Wiedemann, *ibid.* p. 785참조.

제의 메카니즘을 도입한 혼합경제체제를 특색으로 한다. 특히 외국자본을 적극 도입하여 많은 합작회사를 갖고 있는 것도 유고식 사회주의의 특징이다. 이러한 점에서 중공의 현 경제개혁은 관리제도면에서 유고모델과 비슷한 점이 있다. Wiedemann에 의하면, 중공의 현 지도층은 유고의 경우, 시장의 힘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노동자들의 관리결정에 전적으로 맡겨둠으로써 전반적인 거시경제계획에 의한 충분한 지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노동자 개인의 소득에 대한 열망과 투자 재원을위한 사회적 저축에 대한 요구 사이에 갈등이 야기되어 자본주의 사회에서 나타나는 경제적 혼란과 낭비가 초래된다고 보고, 오히려 노동자의 자치관리를 좀 더 약화시킨 헝가리 모델을 더 선호하는 것 같다고 한다.⁴⁶⁾

따라서 이상의 경제개혁의 내용을 보면 實用主義路線은 價値의 法則에 입각한 ‘社會主義 商品經濟’를 추구하고 있는 바, 이는 生産力의 급격한 발전을 목적으로 시장의 수급조절 기능을 제한적으로 활성화하고, 기업을 중심으로 경제하부 단위의 자율성을 제고시키며, 국가계획과 민생에 관련된 중요한 경제활동에 대해서는 지령성 계획을 실시하지만 기타의 경제활동(일부 농산품, 일용상품 및 서비스 등의 용역활동)에 대해서는 지도성 계획 또는 완전한 시장조절을 실시하는 ‘계획경제적 상품경제’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생산수단의 공유원칙을 고수하며 자원배분면에서 국가의 계획 기능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본주의 시장경제와는 구별된다. 이 두가지 기본성격이 사회주의경제체제를 유지하는 안전판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현 중공 당국에 의하면 “사회주의 경제와 자본주의 경제의 구별은 상품경제의 존재여부와 가치법칙의 작용여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소유자의 상이함, 착취계급의 존재여부, 어떠한 생산목적에 기여하는가...”⁴⁷⁾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추진하는 경제개혁은 사회주의와 배치되지 않는다고 한다. 즉, 사회주의의 계획경제를 ‘主’로 하고 시장경제적 요소를 ‘從’으로 하는 ‘계획경제적 상품경제’이기 때문에 엄연히 사회주의를 실천하는 것이고, 모든 생산수단은 여전히 공유화되어 있고 착취계급의 등장을 제도적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생산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개인과 기업을 물질적 유인으로부터 자극하는 것이 하등 사회주의 추구에 배치되지 않는다는 것이다.⁴⁸⁾

요컨대 實用主義路線의 이데올로기적인 성격은 이와 같은 ‘社會主義商品經濟’라는 새로운 모형의 ‘중국 특색을 지닌 社會主義’를 창출하고 있다고 보여지며, 이는 곧 대규모 生産手段을 국가가 소유하여 자원배분면에서의 전국적인 계획경제를 실시한다는 점에서는 社會主義的이라고 할 수 있으나, 生産力의 발전을 위해 자유시장 경쟁원리에 따르는 생산, 분배와 이윤제도를 크게 인정한다는 점에서는 共產主義典型에서 크게 벗어난 ‘中國式 社會主義’의 새로운 모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46) Wiedemann, *loc. cit.*

47) “關於經濟體制改革的決定,” *op. cit.*, p.272.

48) 유세희, *op. cit.*, p.35.

Ⅳ. 結 論

이상에서 鄧小平이 추구하는 實用主義路線의 性格을 毛澤東思想과 관련하여 고찰해 보았다. 그것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實用主義路線은 經濟決定論의 입장에서 生産力의 발전을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원동력으로 삼고 客觀的인 發展法則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毛澤東思想보다 더 마르크스주의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生産力을 높이는 방법으로는 能率主義와 자본주의적 시장경제 요소를 도입하며 서방과의 자본·기술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둘째, 實用主義路線은 여러면에서 毛思想과 대조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전면적으로 毛思想을 부정하지는 않으며, 자기 노선의 정당성을 毛思想에서 찾고 있다. 이러한 점은 實用主義路線의 과도기적 성격을 시사하는 것이다.

셋째, 實用主義는 경제결정론적 입장에서 생산력의 발전을 최우선시하기 때문에 實用主義路線이 현실적으로 추구하는 이데올로기적 성격은 '社會主義商品經濟'로 나타나게 된다. 이는 유고와 헝가리의 市場社會主義와 매우 유사한 것으로서 생산수단의 공유와 자원배분면에서는 전국적인 계획경제를 고수하면서도, 생산력의 발전을 위해 자본주의적인 자유시장 경쟁원리 및 이윤제도 등을 인정하는 '中國式 社會主義'의 새로운 모형이다.

이러한 성격으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점은 鄧小平의 實用主義路線이 現代化를 위해 자본주의적 요소를 많이 수용하고 있으나, 결코 社會主義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政治이데올로기를 기존의 정치질서 또는 앞으로 실현코자 하는 새로운 정치질서를 정당화하기 위해 내세우는 理想狀態, 現實分析, 理論體系 및 行動綱領을 내포한 규범체계라고 정의한다면, 毛澤東과 鄧小平의 理想은 강력한 共產主義 中國을 건설하는 것이며, 이점에 있어 양자는 異見이 없다. 現實分析에 있어 毛가 중국 인민의 공산주의 의식이 약화되어 共產主義를 건설하기 어렵다고 보는 반면, 鄧은 중국의 生産力 수준이 낙후되어 共產主義 實現이 어렵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行動綱領에 있어서는 毛가 중국 인민들에게 공산주의 思想을 투철하게 심어주기 위해 끊임없는 계급투쟁과 不斷革命을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고, 鄧은 낙후된 生産力의 發展을 위해 온 힘을 現代化 추진에 쏟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바로 이런 점에서 양자는 共產社會 건설이라는 목표는 동일하지만, 그것을 달성하는 방법은 상이하게 나타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아무튼 鄧小平의 중공은 사회주의 노선을 굳게 견지하고 있다. 鄧은 現代化의 기본전제로서 '堅持四項基本原則'⁴⁹⁾을 천명했는데, 이는 社會主義道路의 堅持, 無產階級專政堅持, 共產黨領導堅持, 馬列主義·毛澤東思想堅持이다. 이러한 원칙에 대한 강조는 결코 중공이 자본주의적 방향으로 우선회한 것이 아니라, 발전된 社會主義를 건설하기 위하여 정책적으로 자본주의적 요소들을 도입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鄧小平은 '目前的形勢和任務'⁵⁰⁾에서도 이러한 4개 기본원칙 고수를 강조하면서, 그 핵

49) 「鄧小平文選」, pp.144~170참조.

50) 鄧小平, "目前的形勢和任務," 「中蘇研究」, 제7권, 제4호 (1983/4 겨울), pp.301~302참조.

심은 공산당영도의 견지라고 한다. 그는 “黨은 마르크스·레닌주의와 毛澤東思想의 黨이며, 사회주의 사업과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영도하는 핵심 역량이고 혁명적 기울기 있는 선봉대오이다. ……黨은 인민을 떠날 수 없고 인민도 黨을 떠날 수 없으며 어떤 힘도 이를 변경시킬 수 없다”고 주장하고, 일부 청년들이 ‘독려가며 주인이 된다’는 자본주의 사회의 민주를 맹신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근본적으로 黨의 영도가 없이는 현대 중국의 모든 것은 없음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⁵¹⁾ 즉, 改革은 體制의 틀내에서, 그리고 黨에 反해서가 아니라 黨과 더불어 완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共產黨 一黨獨裁를 철저히 고수하는 것을 보면, 鄧의 實用主義的 體制改革은 경제체제 면에서 부분적으로 자본주의적 요소를 도입한 것이지, 상부구조인 정치체제면에서는 분명히 社會主義 노선을 견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鄧의 實用主義도 毛思想에 못지 않게 社會主義 건설에 대한 신념이 강하며, 다만 그 추진 방법면에서 實用主義는 毛思想보다 좀더 현실적이고 實用的인 정책을 수행하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鄧의 實用主義는 중국의 현단계에서는 毛澤東의 유토피아적 공산사회 실현을 먼 미래로 유보함으로써 儀式化(ritualization) 시켰으며,⁵²⁾ 따라서 毛澤東식의 共產革命은 현실 정치단계에서 신화적 단계로 무대를 옮겨버렸다. 그러므로 鄧의 實用主義路線이 계속 꾸준한 성과를 보인다면,⁵³⁾ 現代化가 점차 달성되고 국민들의 생활수준도 전반적으로 향상될 것이므로 이러한 개혁들을 완전히 역전시키는 毛澤東思想에의 복귀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점에서 ‘革命을 포기한 社會主義’⁵⁴⁾라는 Arif Dirlik의 鄧小平體制에 대한 평가는 재음미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51) 최근의 북경 대학생들의 민주화 요구에 대한 鄧의 부정적 입장에 대해서는 다음 참조. 정중욱, “중공의 민주화와 사회주의의 변모,” 『현대사회』, 제7권, 제1호 (1987년 봄), pp. 186~200 참조.

52) 이러한 견해는 Maurice Meisner, *op. cit.*, pp. 212~239 참조.

53) 실용주의 노선의 성공 가능성을 낙관하는 논의는 다음 참조. Donald S. Zagoria, “China’s Quiet Revolution,” *Foreign Affairs* (Spring 1984), pp. 879~904; Doak A. Barnett, “Ten Years After Mao,” *Foreign Affairs*, Vol. 65, No. 1 (Fall 1986), pp. 37~65; Lucian W. Pye, “On Chinese Pragmatism in the 1980s,” *The China Quarterly*, No. 106 (June 1986), pp. 207~234 참조.

54) Arif Dirlik, “Socialism Without Revolution: the Case of Contemporary China,” *Pacific Affairs*, Vol. 54, No. 4 (Winter 81/82), pp. 632~661 참조.

Summary

The Ideological Characteristic of Chinese Pragmatism —In Relation to Mao Zedong Thought—

Kang Kun-hyung

Two most salient development in Chinese politics in recent years are unquestionably, the rise of Deng Xiaoping as the most powerful leader of the mainland China and the persistent pursuit of Dengist pragmatism. In 1978 Deng mounted a major campaign to abandon ideological dogma and to adopt pragmatism—symbolized by the slogans “practice is the sole criterion of truth” and “seek truth from fact.” Deng persuaded the party to give highest priority to economic development instead of class struggle and to adopt an open door policy toward the world.

In this context, this thesis has two purpose. One is to study the distinction of Chinese prgmatism through the comparison of Mao Zedong Thought and Dengist pragmatism. The Other is to extract the fact that the ideological characteristic of pragmatism is to create a new model of ‘Chinese-style socialism.’

Mao Zedong argues that the most important element in socialist construction is the human mind: when the entire population is equipped with communism, socialist construction will be achieved and a communist society realized. This means that the human mind is decisively more important in the relation of man and environment, and that socialist revolution is a revolution of human consciousness.

Meanwhile, pragmatists argue that the improvement of the productive forces should be the prime force for the socialist construction in China. As part of an effort to raise the productive forces, they define the present state of Chinese society as the first stage of socialism, and introduce meritism and some elements of the capitalist market economy. Therefore, it can be summarized that the distinction of pragmatism is economic determinism, materialism, class harmony, and meritism.

In this respect, China seeks to create a new model of ‘Chinese-style socialism’ suitable to her situation. That is the socialist commodity economy based on public ownership, in which the law of value must be consciously followed and applied.